2026.04.08.

미국-이란 간 2주 휴전, 매크로 점검

유준위 기업1실 수석연구원 02.368.5403 jwyoo@korearatings.com
장미수 기업1실 책임연구원 02.368.5471 msjang@korearatings.com
김종훈 기업4실 수석연구원 02.368.5523 jhoonkim@korearatings.com
이서진 기업4실 선임연구원 02.368.5332 leesj@korearatings.com
최주욱 기업1실 실장 02.368.5303 jwchoi@korearatings.com
이지웅 기업4실 실장 02.368.5475 jwlee@korearatings.com

◆ 미국-이란 간 전쟁 및 매크로 동향

2026년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 하에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란 정부도 방어 작전을 중지하고, 이란군과의 공조, 기술적 제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금번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적으로 개방되겠지만, 유가 안정화와 원자재 공급망 회복 측면에서 유의미한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페르시아만에 대기하던 유조선 등이 빠져나오면서 원유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휴전 기간 중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이란 통제 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봉쇄 이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통행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페르시아만으로 투입 가능한 선박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항만 혼잡 등에 따라 입출항이 지연될 수 있어, 휴전 기간 내 원유 공급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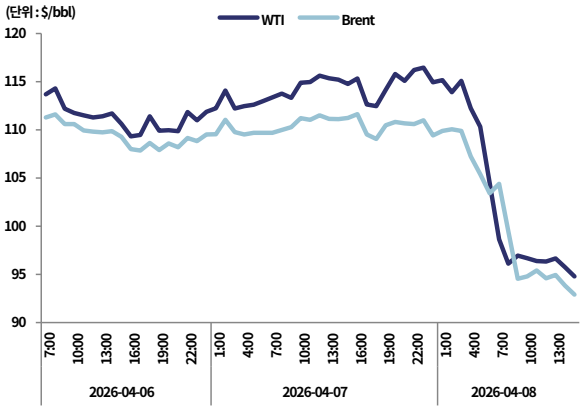
[유가] 휴전 발표 직후 유가가 하락 중이다. 4월 8일 WTI 유 기준으로 전일 대비 약 15% 하락한 배럴당 96달러 수준이다.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에 따른 글로벌 수급 회복 가능성, 분쟁 종식 기대감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일부 소멸,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량이 글로벌 원유 소비량의 20% 수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이다. 해협 봉쇄 해제로 그간 묶여있던 중동산 원유 일부가 공급되면서 수급 회복에 일부 일조하겠지만, 2주라는 기간을 감안할 때 유의미한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유가는 휴전 이전 대비 하향안정화되겠지만, 전쟁 이전 시점인 2월 대비로는 여전히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망] 금번 휴전으로 전세계 원자재 공급의 핵심적인 생산기반 역할을 담당하는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위기가 다소 완화되겠지만, 원유, 납사 등 원자재 공급망의 실질적인 회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동산 원유 수출량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의존도가 70% 수준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가 원자재 조달 여건 관련 핵심적인 모니터링 요인이다.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겠지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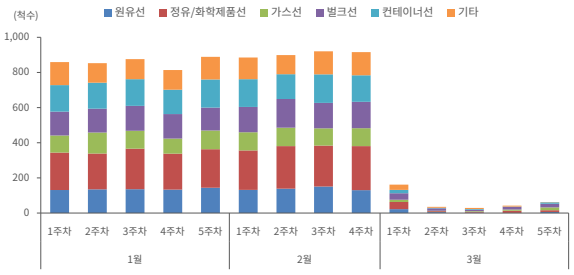
란의 통제 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봉쇄 이전 수준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중동 지역에 기존 투입되던 유조선의 70% 정도가 대체 운항되고 있고, 중동 인근에서 운휴 중인 선박은 30%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또한, 운휴 선박의 경우 적하 및 입출항 일정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 투입이 쉽지 않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도 실효성 있는 운항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페르시아만 내 묶여 있던 선박 일부가 해협을 통과하며 원유 공급 회복에 일부 기여하겠지만, 해당 물량이 약 1,400만배럴(국내 원유 소비량 기준 약 5일치)로 크지 않아 국내 원료 조달 여건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휴전 기간 중 양 국간의 협상 진행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협상 타결 여부 및 관련 내용,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수준, 국제유가, 환율 동향 및 보험료 추이 등 주요 변수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림 1] 유가 추이



[그림 2]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주) WTI, Brent는 선물가격 기준
자료) 업계자료 취합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